

10 물고기 배 속의 요나

요나 1~4장



하나님께서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앓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죄가 가득해지자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쳐라.”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뱃사공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서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무 두려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더 심해지자,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성경 암송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2)

그러자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흘 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것을 외쳐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큰 성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녕쿨이 자라게 하여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벌레가 박녕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자 요나는 너무나 뜨거워서 죽기를 원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박녕쿨이 없어진 것으로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예! 화를 내고 죽더라도 옳습니다.”

“요나야, 너는 하찮은 박녕쿨을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니느웨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요나가 니스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① 귀찮아서



②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③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스웨 사람들이 싫어서



니스웨 도시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도시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스웨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



비록 죄악이 가득한 니스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스웨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

- ① 계속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 ②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를 못살게 굴었다.
- ③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나가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7)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민주에게는 학교에 특별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민주의 단짝인 주영이입니다. 민주는 주영이를 꼭 전도하고 싶어서 '어린이 천국 잔치'에 가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매주 나가야 해서 무조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주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혜진이는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고 잘 씻지 않아서 친구들이 혜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영이와 싸운 적도 있어서 저는 혜진이가 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혜진이는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 했습니다. 저번에는 저에게 교회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혜진이에게 전도를 하면 함께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그럼 주영이와 사이가 멀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혜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주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는 민주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주위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 경험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알아볼까요



예수님의 모형인 요나

요나	예수님
니느웨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요나 1:2)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14)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요나 1:14~15)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45)
준비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어요 (요나 1:17)	예수님께서 예비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 27:57~60)
죽은 줄 알았던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삼 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요나 2:10)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삼 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1~10)

부모님란

선생님란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parent signature.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eacher signature.